



도쿄올림픽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

IOC·도쿄올림픽 조직위 예정대로 개최 강조
5월까지 테스트이벤트... 코로나19 추이 따라

하계올림픽 32번째를 맞이하는 2020년 도쿄올림픽은 과연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긴커녕 확산일로로 치닫자 도쿄올림픽이 제대로 열릴지 걱정하는 세계인의 시선은 늘고 있다.

도쿄올림픽은 7월 24일 개막한다. 21일 현재 개막까지 154일 남았다.

지구촌 유행 단계로 접어든 코로나19 사태 탓에 도쿄올림픽의 성화가 새로 지은 신국립경기장에서 제때 타오를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20일(한국시간) 뉴스위크 등 세계 언론에 따르면, 오시타나 히토시 일

본 도호쿠대 교수(바이러스학)는 일본 외신기자클럽 인터뷰에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지원 인력, 관객, 언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어 올림픽을 치르기에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올림픽이 열리는 7월 말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는 "안전한 올림픽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어 올림픽을 치르기에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올림픽이 열리는 7월 말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어 "도쿄올림픽의 최대 위험은 코로나19와 유사한 질병의 대규모 발생이며 예방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을 예정대로 열 예정이라고 강조한다. 대회를 취소하거나 장소를 바꾸는 '플랜 B'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IOC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도쿄올림픽 준비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며 "IOC는 자체 의료진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와 사태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이달 말부터 5월까지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대비한 종목별 테스트 이벤트를 19번이나 개최해 대회 준비 상황을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올림픽 정상 개최 여부는 코로나19 사태 확산 추이와 테스트 이벤트 개최 등을 면밀히 살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1896년 근대 올림픽이 태동한 이래 1·2차 세계대전 때를 제외하곤 하계올림픽은 4년마다 어김없이 열렸다.

하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은 해는 1916년, 1940년, 1944년이다.

냉전 시기에도 1980년 모스크바, 1984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반쪽'으로라도 올림픽이 열렸다.

모기를 매개로 감염돼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2016년 브라질을 강타했는데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정상으로 열렸다.

다만, 디스틴 존슨(골프) 등 유명 선수들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리우 올림픽을 불참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7월에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례가 도쿄에서도 반복될 여지는 있다. 연합뉴스

김연경 "소속팀·대표팀 최선 다할 것"

터키서 재활 후 코트 복귀
"마지막 올림픽 잘 하고 싶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 주장 김연경이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터키로 출국하기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구 여제' 김연경(32·터키 여자시바시)은 한국 여자배구대표팀과 소속팀에서 모두 주장 완장을 찬다.

한국에서도, 터키에서도 김연경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코트 위에 선다. 재활하는 기간에도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 김연경은 3월 코트 복귀를 위해 속도를 낸다.

김연경은 20일 터키로 출국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들어서기 전 김연경은 "3주 동안 국내에서 재활한 건 아니다. 터키에서도 2~3주 더 재활해야 한다"며 "내가 부상을 당해서 소속팀도 손해를 입었다. 재활을 잘 마쳐서 여자시바시에 도움을 주고, 도쿄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연경은 대표팀과 소속팀 일정을 병행 소화하며 쉼 없이 뛰었다. 치진 상황에서도 1월 7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나콘랏차시마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에 출전했고, 결국 탈이 났다.

김연경은 예선 마지막 경기 카자흐스탄전에서 복근이 찢어지는 부상을 했지만, 진통제를 먹으며 태국과의 결승전에 출전했다.

한국은 김연경의 활약 속에 아시아 예선에서 우승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대회를 마친 김연경은 국내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고 '6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1월 18일 터키로 건너간 김연경은 여자시바시와 일정을 논의했고 국내에서 재활 훈련을 하기로 했다.

3주 동안 국내에서 재활 훈련한 김연경이 다시 터키로 향했다. 김연경은 부상으로 연봉 재조정(삭감)에 동의하며 소속팀 여자시바시에 미안함을 표했다.

터키리그 정규시즌은 2월 27일에 끝난다. 이후 여자시바시는 3월부터 5월까지 터키리그 포스트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등을 소화한다.

김연경은 정규시즌 출전은 어렵지만 포스트시즌과 유럽챔피언스리그에서는 힘을 보탤 생각이다.

지금은 소속팀 일정을 먼저 챙겨야 하지만, 김연경은 '마지막 올림픽'에 대한 의욕도 잊지 않았다.

한국은 7월 26일부터 도쿄올림픽 본선을 치른다.

김연경은 "(여자대표팀 감독)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님이 너무 자주 연락하신다"라고 웃으며 "나와 양호진(현대건설) 등 많은 선수에게 도쿄가 마지막 올림픽이다. 마지막 기회니까, 더 잘 치르고 싶다"고 했다. 연합뉴스

'손해리' 듀오 EPL 사상 최강 공격력

토트넘 핵심 손흥민·해리 케인
총 102골...경기당 평균 1.3골

부상으로 동반 휴업에 들어간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상 토트넘 홋스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사상 최강의 파괴력을 지닌 '골잡이 듀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대중지 '더 선'은 토트넘이 두 선수 없이 치른 RB라이프치히(독일)전에서 패배한 20일(한국시간) 흥미로운 통계 분석 결과를 내놨다.

더 선에 따르면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함께 뛰었을 때 지금까지 총 102골을 기록했다. 케인이 67골을 넣었고 손흥민이 35골을 더했다.

이를 90분당 득점으로 환산하면, 이들 두 명은 경기당 평균 1.29골을 합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 기록에 해당하는 득점력이었다.

5000분 이상 함께 뛰는 각 팀의 공격 조합 가운데 손흥민과 케인 듀오보다 많이 넣은 이들은 없었다.

현재 무패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리버풀의 무함마드 살라흐·사디오 마네 조합은총 89골로 평균 1.26골을 기록해 '손해리'(손흥민+해리 케인) 듀오에 이어 2위에 자리했다.

지난 시즌까지 리그 최강으로 군

림한 맨체스터 시티의 세르히오 아케로-라힘 스틸링 조합은 총 100골, 평균 1.22골로 3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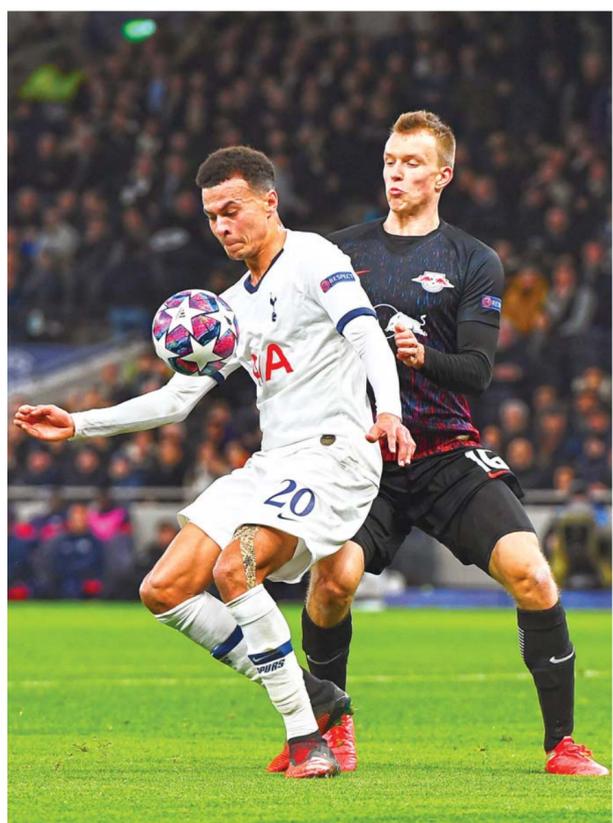
최고의 공격 조합을 거론할 때 늘 빠지지 않는 이름인 아스날 시절의 티에리 앙리-로베르 피레스는 총 162골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득점능을 경기당 골수로 환산하면 1.21골로 '손해리'보다 3계단 아래인 4위에 그쳤다. 손흥민과 케인이 얼마나 찰떡같은 공감을 보여줬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토트넘은 최강의 듀오를 더 선에 따르면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함께 뛰었을 때 지금까지 총 102골을 기록했다. 케인이 67골을 넣었고 손흥민이 35골을 더했다.

이날 치른 라이프치히와의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은 토트넘이 두 선수의 동반 부상 뒤 처음 맞이한 경기였다.

토트넘은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0-1로 져 남은 시즌 전망을 어렵게 했다. 연합뉴스



'손해리' 없는 토트넘은 어디로...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RB 라이프치히(독일)의 2019-20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1차전 경기에서 토트넘이 0-1로 패했다. 핵심 골잡이 해리 케인과 손흥민마저 장기 부상으로 빠진 토트넘은 앞으로 어떤 공격력을 보여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농구 아시아컵 태국전 '코로나19'로 무관중 경기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대한민농구협회가 2021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예선 태국과 홈 경기를 관중 없이 치르기로 했다.

협회는 20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선수 및 팬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23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인 2021 FIBA 아시아컵 예선 홈 경기 태국과 2차전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

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관 방역,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식 체온계를 통한 체온 측정과 더불어 손 세정제, 마스크 등을 준비하며 정상적인 대회 진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선수 및 팬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해 전면 무관중 경기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티켓 예매자들에게는 수수료 없이 모두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중계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하며 취재진은 경기장 출입 시 열화상 카메라 통과, 비접촉식 체온 측정 및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연합뉴스

직영 A/S체제로 확실하게 책임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대륙과 함께!

확장
이전

(주) 대륙기계 제주총판
(주) 두산테크 제주총판
(주) FELCO가위 제주총판
(주) 미듬 제주총판

감굴 전정목 파쇄와 제주지형에 강한 맞춤형 파쇄기!!

히트상품
이중칼날구조



14TRC-HS (16마력)



10TRC-H (9.5마력)



13TRC-H (14마력)



15CRS (18마력)

강력한 힘!
손쉬운 운전!!

1회 충전
5일 이상 사용

운전 조작이 너무 쉽다



MX-E350 (전동형)



MX-500DL (케도형 덤프+리프트)



MX-500 (케도형 수동)



MX-300 (엔진형)

휴대용 전동가위

스위스 전통의 정밀기계와 컴퓨터 기술을 융합한 충전식 배터리 전동가위로써 우수한 절단 능력과 최상의 편리성 실현



FELCO 801
최대 절단경 30mm



FELCO 811
최대 절단경 42mm



FELCO 820
최대 절단경 45mm

대륙종합농기계 확장이전 장소

남원1 300m
위미농협 주유소
효문삼거리

예전위치

대륙종합농기계

(위미 입구 삼거리 남원 방향)

064) 767-3430

(판매/A/S문의)